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전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전직 뉴욕타임즈 직원의 이야기였는데,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0년전에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자신의 과거 사진과 몇몇 서류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기억...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저마다의 추억들이 있으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던 것을 찾게 된 비유들이 3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가장 먼저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보잘 것 없는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의 입장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길 잃은 양은 행복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 여러분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의 양 무리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주인인 목자의 뒤를 잘 따랐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꼭 참고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친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목자는 자기들을 들에 두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99마리의 양이십니까? 아니면 길을 잃은 한마리의 양, 주님께서 정성과 사랑으로 찾고 찾으시는 그 양이십니까?

이 이야기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 역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 드라마 중에서 한 드라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뒤져서 그 동전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아가

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지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사회는 ‘죄인들’ 과 ‘의인들’ 로 지칭되는 두 계층이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먼저 죄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든지, 율법적으로 더러운 질병에 걸렸다든지, 술주정꾼이라든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든지, 세리와 같이 로마에 협조하는 매국노라든지,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하면 죄인 그룹에 속했습니다. 반면에,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거나, 병에 걸리지 않고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문자적으로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의인’ ,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 의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죄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의인과 죄인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뒤섞이는 것을 금기시하며 경계해왔습니다.

하지만,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처럼, 잃은 동전을 찾아서 집안을 쓰는 여인처럼 하늘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흔 아홉보다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시 죄인들을 멸시하고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의 존재를 멸시하며 부정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인내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을 멸시하고 부정하느냐고 통렬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 밑에는 유능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한 제자는 사고몽치에다가 말썽만 일으키는 못된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스승의 말을 잘 알아듣는 제자들은 그 말썽꾸러기 제자가 항상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런 녀석 때문에 우리의 위신이 꺾인단 말이야!”

어느날 제자들이 작당하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못된 녀석을 집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그러자 제자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어째서 성실히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른 저희들은 냉대하시면서 저 못된 놈은 그렇게 너그러이 두둔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불평에 대해서 그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지만 저 녀석은 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니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뉘우치고 그 못된 제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읽은 양 한마리보다는 들에 남아있는 아흔 아홉 마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목자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는 별로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계명을 지키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위선이 자리잡고, 사

양이 떠나버린다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작 불행했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실족하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이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당연히 99마리의 양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마리 양은 이미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을 잃어 버린 (지속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한마리의 양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먼저 구원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서툴고, 신앙적으로 쉽게 흔들리기 쉬운 초신자들을 너그러니 인내함으로 돌봐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아 주십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아 주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심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 생활하려고 할때, 배 아파하거나 저러다가 금방 지칠 것이라라고 단정짓지 않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약 절반은 유전자에 기반한다고 해요. 즉,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는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도를 높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복의 40%는 사람들의 선

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84년 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724명의 소년을 2년마다 인터뷰했고,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건강, 사회적 성취, 친구 관계 등 삶의 전반을 추적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놀라웠는데요. 행복은 돈, 성공, 성취, 명예가 아닌 ‘인간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사람일수록 행복을 느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까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도하는 가운데 늘 새워나가는 삶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행복감도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랠리 데이입니다. 랠리 데이의 의미에 대해 몇몇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랠리 데이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해서 보통 9월이나 10월초에 이러한 모임을 갖습니다. Webster’s Dictionary에 보면, "rally"를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으거나 소집하다"라는 동사 또는 "공동 행동으로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사로 정의하고 있어요. 랠리 데이는 여름 휴가를 보낸 후에 다시 신앙생활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결단하는 기회인거죠. 성경 공부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교회 멤버들을 환영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동안 껴조했던 사람, 최근에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그 분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행복감도 찾으실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으시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99마리의 양이십니까? 아니면 길을 잃은 한마리의 양, 주님께서 정성과 사랑으로 찾고 찾으시는 그 양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